

사우디, 리야드에 금융센터 건설 추진

-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도인 리야드에 “King Abdullah Financial District”로 명명된 금융센터 건설을 통하여 금융허브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.
- 상기 금융센터는 국제공항 및 시내 상업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리야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할 예정이며, 총 부지는 160만 스퀘어 미터에 달하여 영국의 금융 및 상업중심지인 Canary Wharf의 345천 스퀘어 미터 보다 훨씬 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.
- 본 프로젝트에 2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며, 금년 말까지 마스터 플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, 2007년도 중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임.
- 동 금융센터의 건설이 완료되면, 사우디 주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국영 금융기관들이 입주함은 물론,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들도 동 센터로 이주하거나 최소한 지점을 개소할 계획임. 뿐만 아니라, 금융 산업에 연관된 회계법인, 금융자문사 등도 상기 센터 내에 입주하게 될 예정임.
- 사우디 정부는 동 금융센터가 금융허브로서 성공적으로 정착

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정비 및 IT 관련 등 인프라 시설 구축은 물론, 금융관련 대학교 유치 및 컨퍼런스 홀 등의 부대 시설도 함께 갖추도록 할 계획임.

- 사우디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금융센터 건설 계획은 2005년도말 WTO에 정식 가입하게 됨으로써 사우디 정부가 외국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60%까지 허용함과 동시에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,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사우디에서 자국민을 위해 많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매우 시의 적절한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음.

(자료제공: 두바이 사무소)

문의: 전문연구원 차경진 (☎3779-6686)
E-mail : chakj@koreaexim.go.kr